

중국은 삼국시대부터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 등 모든 면에서 우리 나라와는 매우 밀접한 역사를 이루어왔다.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의 문화의 발전과 유지는 중국 문화의 흡수와 융화로 이루어졌다. 물론 중국과의 많은 전쟁도 있었지만,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 나라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중국이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韓國과 中國의 수교가 단절되었다. 수교 단절의 결정적인 이유는 中國이 아시아 냉전체제에 의해서 발생한 韓國戰爭에 北韓을 지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美國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과 오랜 기간 敵對的인 관계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냉전체제는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조류에 의해서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中國과 美國의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에서 상대적 관계로, 상대적 관계는 다시 우호적 관계로 발전되었다. 韓中 관계 역시 政治制度의 차이와 北韓이라는 체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여건과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새로운 關係改善의 필요성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중국학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와 독특한 관계성을 가진 이러한 중국의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어학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 문자(漢字)의 창제와 발전과정, 자음(字音) 및 자의(字義)를 연구하는 광의의 문자학과 언어의 구조 및 발전 법칙을 연구하는 어법학 등이 있고, 문학 분야에 있어서는 韻文 계통인 시·사(詞)·곡(曲) 및 산문계통인 소설·비평 등 고전과 아울러 5·4 운동을 시점으로 한 신문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장르를 포함하여 연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학문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중국과의 수교이후 정치적인 관계성 회복은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개방과 교류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중국과의 정치적인 교류 이전의 중국학은 대중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고 단지 소수만의 순수 학문에 지나지 않았다. 수교 이전에는 많은 대학생들이 중국학을 도외시 하였다. 그런 무관심속에서도 중국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었다. 소수의 학문인 중국학을 전공하셨던 분들 중 한분인 현 동아대 경제교수님이신 김창남 교수님과 인터뷰를 해 보았다. 현재 김창남 교수님은 중국학을 전공하시는 대신 경제학 박사로서 전향하셔서 동아시아 경제를 연구하시고 현 동아대 경제학 교수님으로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다.

■ 인터뷰 내용

1. 중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시장경제화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중문과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중국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경제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2. 교수님께서 수학하신 과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처음에 중국학을 배우실 때는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하지도 않고 사회적으로도 환영받지 않았는데, 초창기 때의 수학과정에서의 애로 사항이나 힘들었던 점 등을 포함해주셨으면 합니다)

초기에는 연구자료도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공산권 자료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3국 예컨대 미국이나 일본에서 발간되는 자료에 의존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미국이나 일본 대만에서 수학하고 오신 교수님들의 자료에 많이 의존합니다.

3. 중국과 관련된 강의를 들으신 적이 있었는지요? 그 강의에서 중국에 대한 인상은 어떠했는지요?

대학 학부시절 신해혁명과 국공전쟁, 문화혁명과 홍위병 등이 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은 문화혁명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의 중국의 경제발전은 어쩌면 문화혁명에서 보여준 중국인의 기질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신들이 모든 과거 유산을 발전의 저해로 간주하고 대부분의 모든 국민과 지식인들이 유산을 파괴하고 소외했다는 것은 본인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본인은 그 당시의 중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중국인들이 마음과 생각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10년동안이라는 긴 기간동안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몽개버리고 소홀이 하였다.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전통적인 문화와 유산들이 자신들의 행복과 삶의 안위를 방해했다는 생각을 하면 깊은 배신감이나 좌절감으로 일시적으로 그럴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문화혁명은 자그만치 1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중국인들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했다. 그런 점이 본인은 학부시절에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문화혁명과 지금의 중국 발전에 상관관계는 짧은 소견으로 중국인의 단합과 적응력이 아닐까한다. 문화혁명에서 보여준 중국인들이 말도 안되는 단합심과 적응력으로 10년간에 걸쳐 철저히 과거 유산이 파괴되었고 소외시 된 것처럼, 공산정권이 가지는 맹점인 경제적인 낙후를 이겨내고자 그들은 자본주의 경제방식을 자신들의 사회주의에 융합시켰고 단합된 마음

으로 경제개발에 중국전체가 참여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4. 연구를 해오시면서 스승으로는 어떤 분들이 계셨는지요? 그분들이 교수님의 연구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대학원을 계기로 학문을 전향하여 지금은 개발경제학자로서 중국은 오로지 동아시아 역내 국가의 일원으로서 타국과 비교분석의 대상이었고, 따라서 본인의 은사는 중국 전문가가 아닌 개발경제학자인 일본의 와타나베 토시오 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은 중국경제에나 사회 구조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이시고, 저서도 많이 내셨다.

5. 연구초기 참가했던 학술회의와 연구회가 있으면 생각나시는 대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일본에서는 아시아경제연구소의 아시아성장분석센터의 연구위원회, 한국에 귀국해서는 북방경제학회(현 한국동북아경제학회)등등 있다

6. 일반적으로 연구과제는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동북아 각국간의 무역 및 외자 등 경제교류관계를 분석하면서 중국의 장래를 검토해 보았다.

7. 연구비용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요? 그리고 연구를 하시면서 연구비와 관련된 변화가 있는지요?

거의 자비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된 적도 많았다.

8.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연구와 경험이 어떻게 투영된다고 보십니까? 강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었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된 것이 있는지요?

본인의 강의는 경제발전론과 국제무역론, 세계경제론 등이기 때문에 대부분 연구성과가 학부와 대학원 수업에서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다. 강의 내용의 틀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다만 추세와 경향만 달라졌을 뿐이다. 마치 식사를 할때 매번 같은 그릇에 다른 음식을 담아 먹는 것과 같다.

9. 한국의 중국학계에 대해 논평을 하신다면?

한국의 중국학계에 대해 전문적인 평을 할수 없지만 간단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보도록 하겠다. 수교 이후 중국의 연구는 한국에서 한학 연구가 시작된 이래 매우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그 특징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한국의 한학이란 文, 史, 哲 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인문과 사회 그리고 자연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知彼라고 하는 병가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연구는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漢學=先進이란 과거의 인식으로부터 중국문화=동양문화=동아시아문화 의 原型이라는 인식상의 변화에 따른 관심과 연구라는 점을 또 다른 특징으로 말할수 있다고 본다. 이렇듯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될 중국을 정치적인 수교 단절로 인해 1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중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공백기를 주었다고 생각된다. 중국학을 文, 史, 哲에 치중하는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중국학이라는 새로운 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된다.

10. 타국가의 중국학 연구에 대한 의견과 배워야 될 점과 지향해야 될 점에 대해서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일본에서의 중국학 연구는 한국보다 중국사회의 구조적, 제도적 문화적 측면에서 매우 심도있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구성과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 후에 나타 납니다. 한국은 너무 급조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연구비 확보를 위하여 정책지향적 연구에 치중하다 보니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1. 중국학술계나 기타 사람들과 교류가 있으신지, 함께 연구를 진행한 경험은 있으신지요?

동북재경대학 경제학부 교수와 일본 가나자와 경제대학 교수와 동아대 등의 3개국 공동 학술연구를 3년간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12. 중국의 발전 과정과 미래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중국이 지금과 같은 경제적인 개방을 꾸준히 지향하다면 향후 10년 이상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발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13. 한국에서 중국 연구가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중국에 자료수집이 관건이라고 생각된다. 한국내에 중국에 관계된 자료가 타국가에 비해서 빈약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1949년도에 중국에 관한 자료가 도서,신문,정기간행물등을 포함해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만 해도 40여 개소에 이르고 대만의 盧資料中心에는 약 40만권 이상의 중국 관계의 원시자료를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학의 방법적인 문제 또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중국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종전처럼 문 사 철이 혼합된 전통적인 방법을 버리고 현대적인 과학적 방법만으로 중국을 연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중국학의 경우 과거에도 그러하듯이 지금의 중국학 또한 文이 事와 實을 실지 않으면 공허하고, 史에 관한 觀과 評이 없으면 무의미하며, 輯이 學과 行을 담고 있지 못하면 제의미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14.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학과 관련한 민간기금회, 재단 등이 얼마나 있으며, 소속하신 연구단체는 무엇이며 그 연구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거나 맡고 계신지요?

중국학과 관련된 재단이나 단체에 가입한적은 없지만 현재 연강 재단이나 동북아역사 재단 등에서 중국학과 관련해서 재정적인 지원이나 학술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15. 중국학을 연구하는 차세대학생들이나 지금 학문에 뛰어들 교수님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중국의 역사와 사회구조를 충분히 습득한 후에 각 전공별로 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은 어느 나라보다 길고 복잡한 역사와 전통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졌다. 따라서 중국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통에 대해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의 언어이다. 긴 역사의 결과의 산물인지는 잘 모르지만 중국의 언어는 타민족의 언어보다 고유한 특성과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중국의 말과 글이 통일시 되었지만 백화문 운동이전까지만 해도 말과 글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았다. 물론 민간 문학의 발달로 그 이전시기에도 말과 글이 일치하는 문학이 존재 하였지만 대부분의 문학이나 기록으로 남겨진 문서는 말과 글이 일치하지 않았다. 특히 문자학이나 전통문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은 고문에 대해서도 깊은 조예가 필요할 것이다.

16. 중국학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바라는 점이나 나아가야될 방향을 제시한다면 무엇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연구 업적이 중국의 사회와 정치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여 주지만 고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현대 학문의 목적을 충족시키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론의 적용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지금의 학문에 있어서 과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중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다.) 근 1세기에 걸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중국 연구의 공백과 단절은 다른 국가들보다 중국에 대한 지적인 수준을 현저하게 저하시켰다. 개방이후 많은 중국 연구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 그동안의 시간적인 공백을 메웠지만 아직까지 다른 나라들보다 중국에 대한 지적인 연구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물론 민간 단체나 기업 등이 앞장 서서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과학적인 학술연구를 할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자청해야 될 것이다.

 지금은 중국학과 거의 무관한 동아시아 경제학을 담당하시고 있는 김창남 교수님과 중국학과 관련해서 짚막한 인터뷰를 해보았다. 이 인터뷰의 본 취지는 수교이전부터 지금까지 중국학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외롭고 힘든 학문의 길과 연구 성과를 조사하고 알아보는 것이다. 중국학을 연구하시지는 않으시지만 誠心誠意을 다하셔서 인터뷰를 해 주신 김창남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경력 및 학력

▲ 경 력

- 1982년-1985년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IDE) 연구위원
- 1986년-현 재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 1991년-199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초청연구위원
- 1993년-2001년 동아대학교 학술진흥위원회 위원
- 1995년-2005년 사단법인 여성자원금고(HRB) 감사
- 1995년-1996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초청교수
- 1998년-1999년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장
- 1999년-2000년 동아대학교 동북아국제대학원 원장
- 1999년-2001년 제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2000년-현 재 학교법인 광성학원(광성중고등학교) 감사
- 2000년-2001년 동아대학교 기획실(처)장
- 2000년-2001년 동아대학교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
- 2000년-2001년 동아대학교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단 단장
- 2000년-2001년 동아대학교 동북아연구소 소장
- 2001년-2002년 일한문화교류기금 초청 객원교수

▲ 학 력

- 일본 아시아대학교 경제학 학사
- 일본 쓰쿠바대학교대학원 국제학 석사
- 일본 쓰쿠바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 학회활동

1980-1984년 (일본) 신한학술연구회 총무 및 주임간사 역임.
 1982년-현 재 아시아정경학회(일본) 증신회원
 1986-현재 한국경제학회 정회원
 1986-현재 한국국제경제학회 정회원
 2001-현재 한국경제연구학회 정회원
 2001년-현재 국제개발학회(일본) 정회원
 1993년-1994년 한국국제경제학회 이사
 1995년-2004년 한국비교경제학회 감사
 1998년-2000년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편집위원장
 1998년-2000년 한일경상학회 상임이사 겸 편집위원장
 2000년-2005년 사단법인 한일경상학회 부회장(차기회장)
 2000년-2001년 사단법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회장(현재 고문)

■ 단행본

1. 『현대한국경제분석-개발경제학과 현대아시아』, 유풍출판사, 1984년 1월
 [譯書: 渡邊利夫著 『現代韓國經濟分析』 勁草書房(東京), 1982].
2. Industrial Development and Structural Changes in Labor Market: Korea and Southeast Asia,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Tokyo), March 1985.
3. Export Promotion and Trade Liberalization Policy in the Republic of Korea,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Tokyo), March 1989.
4. 『개발경제학-경제학과 현대아시아』, 유풍출판사, 1989년 8월 [譯書: 渡?利夫著 『開發經濟學-經濟學と現代アジア』 日本評論社(東京), 1986].
5.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년 9월.
6. 『일본의 산업 및 무역구조의 변화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년 10월.
7. 『동북아경제권과 한반도 발전전략』, 도서출판 길벗, 1994년 3월.
8. 『韓國經濟發展論』, 케이소 쇼우보(東京), 1996년 3월.
9. 『현대한국경제발전론』, 유풍출판사, 1997년 8월.
10.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구도와 전망』, 도서출판 삶과꿈, 1998년 3월.
11. 『현대국제경제분석』 (역서), 유풍출판사, 1999년 8월.

12. 『東北亞地域 海洋都市間 經濟協力모델 構想-부산, 상하이, 후꾸오까간의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년 12월.
13. 『신동북아경제론』 (공저), FKI미디어, 2003년 3월.
14. 『장보고와 동북아경제 중심전략』 (공저), 박영사, 2005년 2월.

■ 논문

1. 「經濟發展と労働市場構造-日韓比較分析」(쓰꾸바대학 석사학위논문), 1982년 3월.
2. 「日韓農業の投入産出構造と發展パターン」 『アジア研究』 제29권제2호(アジア政經學會: 東京), 1982년 7월(朴宇熙渡邊利夫편, 『韓國の經濟發展』 제7장(文眞堂: 東京)수록, 1983년 9월.
3. 「韓國農業の生産關數推計」, 『經濟學論究』 제2호(쓰꾸바대학), 1982년 12월.
4. 「韓國の經濟發展と労働市場構造」, 『アジア研究』 제30권제2호(アジア政經學會: 東京), 1983년 7월.
5. 「壓縮型農業發展の考察」, 『アジア經濟』 제24권제9호(アジア經濟研究所: 東京), 1983년 9월.
6. " A Consideration of the Compressed Process of Agricultural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Developing Economies, Vol.22, No.2(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cs: Tokyo), 1984. 6.
7. 「아시아제국의 공업화와 고용소득분배」, 『노동경제논집』 제7권(한국노동경제학회) 1984년 10월.
8. 「アジア諸國の工業化と雇用?所得分配」, 渡邊利夫編 『アジア經濟發展の機構と構造』 제1장 수록(アジア經濟研究所: 東京), 1985년 12월.
9. 「經濟發展と労働市場構造: 韓國の經驗と開發途上國」, 쓰꾸바대학 박사학위논문, 1986년 5월.
10. 「工業部門の雇用吸收力と労働移動」, 『東南アジア研究』 제24권 제1호(京都大學東南アジア研究センタ: 東京), 1986년 6월.
11. 「이중경제의 발전이론과 현실」, 『韓日經商論集』 제3권(한일경상학회), 1987년 8월.
12. 「노동이동과 도시비공식부문에 관한 연구」, 『社會科學論集』 제5집(동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7년 12월.
13. 「부산시의 경제발전과 고용」, 『人口問題研究』 제4집(동아대학교 인구문제연구소), 1988년 4월.
14. 「과학기술과 현대자본주의」, 김갑철 외 2인편 『現代思潮의 理解』 제5장 수록(형설출판사), 1988년 11월.
15. 「한국의 무역정책과 수출입효과」, 『社會科學論集』 제7집(동아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소), 1989년 12월.

16. 「환경관리와 주민이주정책」, 『社會科學論集』 제7집(동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9년 12월.
17. 「일본경제:하향곡면으로 진입하는 “헤이세이”경기」, 『오늘의 世界經濟』 제93권 제3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년 3월.
18. 「전후일본의 산업 및 통상정책에 관한 일고찰」, 신규성외 1인편 『戰後日本の 政治와 經濟』 (동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2년 5월.
19. 「지역주의의 확산과 아?태지역 경제협력의 전망」, 『松軒 도우현박사 정년기념논문집』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1993년 9월.
20. 「일본: 개방적 세계경제와 비구속적 동북아 협력의 구상」, 김창남 외 『東北亞經濟圈과 韓半島 發展戰略』 (도서출판 길벗), 1994년 3월.
21. 「한일 경제협력과 동북아지역 경제발전에 대한 역할」, 『韓日研究』, 제7권(한국 일본문제연구회), 1994년 10월.
22. 「기술혁신과 비교우위 구조변화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韓日經商論集』, 제10권(한일경상학회), 1994년 12월.
23. 「한일분업체계의 기본구조와 상호의존」, 『손병규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1995년 2월.
24. 「동북아제국의 역내분업구조와 상호의존의 실체」, 『北方經濟研究』 제6호(한국북방경제학회), 1995년 2월.
25. 「일본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구조의 변화」, 『地域研究』 제4권 제1호(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1995년 5월.
26. 환황해경제권과 부산경제」, 『부산발전포럼』 통권 36호(부산발전연구원), 1996년 11월.
27. 「유럽연합제국의 역내분업체계와 상호의존」, 『比較經濟研究』 통권5호(한국비교경제학회), 1997년 10월.
28. 「동아시아제국의 경제개발전략과 경제발전유형」, 『經濟史學』, 제23호(경제사학회), 1997년 12월.
29. 「부산지역산업의 구조분석과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經營論叢』 제18집(동아대학교 경영문제연구소), 1997년 12월.
30. 「동북아제국의 역동적 발전과 역내분업의 진전」, 김창남 외 공저 『東北亞地域の 經濟協力構圖와 展望』 (도서출판 삼과 꿈), 1998년 3월.
31. 「글로벌화 시대의 한일 분업체계와 경제협력의 전망」, 김창남 외 공저 『東北亞地域の 經濟協力構圖와 展望』 (도서출판 삼과 꿈), 1998년 3월.
32. 「한국의 금융위기와 한일경제관계」, 『東北亞經濟研究』 (한국동북아경제학회), 10권 1호, 1998년 8월.
33. 「ASEAN 4개국의 국제무역과 경제개발」, 『社會科學論集』 (동아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소), 제15집, 1998년 12월.

34. 「ASEAN 4개국의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한 경제개발」, 『東北亞經濟研究』 (한국 동북아경제학회) 제10권 제2호, 1999년 2월.
35. 「아시아의 통화위기와 중국경제의 위기회피 가능성」, 현동일 외편 『中國의 改革開放과 東北亞經濟研究』 (중국 延大學校 출판부), 1999년.
36. 「한일국지자유무역지대 창설에 관한 구상」, 『韓日研究』 (한국일본문제연구학회), 1999년 6월.
37. 「韓日局地自由貿易地帶の創設に關する構想」, 『環日本海研究』 (環日本海學會) 第5號、1999년 11월.
38.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와 희생」, 『社會科學論集』 (동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16집, 1999년 12월.
39. 「한국경제의 발전모형에 관한 평가」, 『손병규박사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동아대학교 경제학부, 2000년 3월.
40. 「동북아 국가간 월경대기오염 저감방안」, 『東北亞經濟研究』, 제11권 제2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0년 2월.
41. "Economic Development Models of the East Asian Countries: Japan, South Korea, Taiwan, Hong Kong, and Singapore,"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Takushouku University(Tokyo), Vol. 2, No. 1, June 2000.
42. "An Economic Development Model of the East Asian Countries: An Alternative Approach " Journal of the Japan Sea Rim Studies, Vol. 6, Oct. 2000.
43. 「동북아지역의 국제분업구조와 교역증대방안」, 『東北亞經濟研究』, 제13권 제1호(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1년 8월.
44. 「일본중소기업의 기술개발경험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韓日經商論集』, 제22권 (한일경상학회), 2001년 11월.
45. "Increasing Logistics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n Area and Designing a Model of Local Networks " Dong A-Kanazawa Journal of Northeast Asian Economic and Social Cooperation, Institute of Northeast Asian Studies(Dong-A University), Vol.1, March 2002.
46. 「再び上昇局面に向かう韓國經濟?その構造改革の成果と現状」, 『AJEC REPORT』 北陸環日本海經濟交流促進協議會(kanazawa), Vol. 29, 2002년 7월.
47. 「한일FTA구상과 한일해협경제권」, 『우리나라의 FTA정책과 부산 지역경제』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연구소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세미나 발표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2002년 12월 6일.
48. 「동북아 3개국의 소지역간 경제협력모델 구상」,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동아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개원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2003년 1월.
49. 「동북아시아 경제발전과 경제협력 구도」, 김창남 외 공저 『신동북아경제론』 (제2장 수록), FK미디어, 2003년 3월.

50. 「일본경제의 성장과 위기」, 김창남 외 공저 『신동북아경제론』 (제5장 수록), FKI미디어, 2003년 3월.
51. "Conceptual Framework for Sub-regional Cooperation of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 Journal of Northeast Asian Economic and Social Cooperation, Vol.2, Dong-A University and Kanazawa Seiryu University, March 2003.
52. 「한일FTA의 선행조건과 동북아 자유지대간 협력망 구축전략」, 『동북아시아 자유무역권 형성과 물류협력』 (부산발전연구원일본 동아시아총합연구소 공동주최 제7회 동아시아 국제심포지엄 발표논문), 2003, 8. 28.
53. 「동북아 3국의 자유지대간 경제협력구상」, 『동북아경제연구』, 제15권 제2호, 2003, 8.
54. 「日韓海????形成?略?究?自由貿易地域結成を目指す??協力?」, 『訪日學術研究者論文集』 제10권(재단법인 日韓文化交流基金: 도쿄), 2003, 12.
55.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선결과제와 동북아 자유경제지대간 협력망 구축방안」, 『한일경상논집』, 제27권, 2003.12
56. 「장보고형 한일경제관계의 모색」, 『한국경제발전과 장보고 전략의 재현』 한국비교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10